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어린이들이 활짝 웃을 수 있기를...”

재단-후원회-한라일보 나눔문화 확산 캠페인 협약 “지역사회 귀감이 되는 다양한 후원자 발굴 노력”



사진 왼쪽부터 장행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장, 이용근 한라일보 사장, 김희석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이하 어린이재단)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이하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 (주)한라일보사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3개 기관·단체는 14일 한라일보사 3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공동 추진 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가했으며 발열체크 등 코로나 방

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개최됐다.

협약에 따라 한라일보는 올해 캠페인에 동참하는 후원자를 매달 2차례씩 기획 취재·보도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

어린이재단은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다양한 후원자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는 지역사회의 많은 후원자가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캠페인을 후원하게 된다.

이용근 한라일보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어린이 재단에서 하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며 “캠페인에 동참하는 후원자를 취재하고 가슴에 와 닿는 따뜻한 기사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행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같이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어린이들이 힘든 일 없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희석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장은 “4년 동안 어린이 캠페인에 동행해 준 한라일보에 감사를 표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에 소개되지 않은 후원자 발굴에 힘써 아이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제주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코로나 확산세 ‘주춤’ 긴장감 ‘여전’ 최근 연일 한 자릿수 확진... 이달 들어 155명

대기고 관련 31명 자가격리

제주지역에서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연일 한 자릿대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도방역당국은 지난달 자가격리자의 상당수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제 전 추가 확진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9명(1184~1192번), 14일 오후 5시 기준 5명(1193~1197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97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선 155명, 올 들어선 776명이 확진됐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최근 격리 중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달 신규 확진자 가운데 39명이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방역당국은 확산세가 가팔랐던 지난달 격리를 시작한 자가격리자들이

의 상당수가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어 해제 전 추가 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14일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5명 중 3명(1193~1195)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유홍주점 및 제주시 직장 관련 확진자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1명(1196번)은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1명(1197번)은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의 가족으로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지난 주말 대기고 3학년 재학생 확진과 관련해 총 181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다. 같은 반 내에서 접촉이 이뤄진 학생과 교사 등 31명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대희기자

“무단방치 車 강제 폐차” 제주시 내달 13일까지 단속

불법개조·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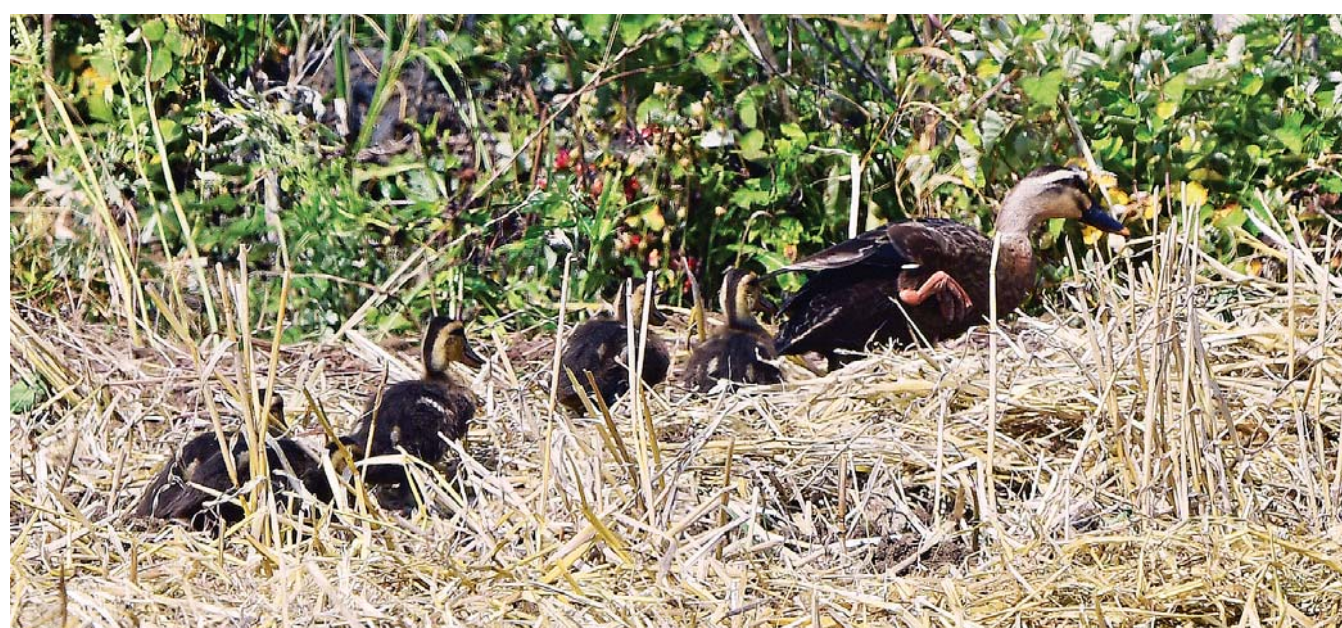
제주시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불법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의 경우 364대가 적발됐으며, 무단방치 자동차는 58대가 적발돼 현재까지 36대(소유자 자진처리 35대·강제처리 1대)가 처리됐다.

일제정리 기간 단속 대상은 ▷도로·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입의 구조변경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 강제로 처리할 계획이다.

승문범기자 seb1119@ihalla.com



흰뺨검둥오리 가족 나들이 13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한 농경지에 흰뺨검둥오리새끼들이 엄마오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다. 이상국기자

‘휴지 멍치’, 증거능력 있나? 없나?

20년 전 부녀자 강간사건 재판과정서 쟁점으로 부각

제주에서 20년 전 발생한 부녀자 강간 사건 재판에서 ‘휴지 멍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거침입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지난 2001년 도내 주택에 침입해 부녀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이 20년 뒤에야 열린 이유는 사건 당시에는 범인의 체액이 묻은 휴지 멍치 외에는 목격자나 CCTV가 없어 수사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2019년 검찰

에서 한씨의 DNA와 휴지 멍치에 있는 DNA가 일치하면서 재판이 성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한씨의 변호인은 휴지 멍치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휴지 멍치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증거 신청이 아니더라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DNA 감정 의뢰서를 재판에서 다루겠다고 맞섰다. 승문범기자

60개교 부분등교... 직업계고 전면등교 ‘시동’

도교육청 학사운영 조정

제주지역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조정 결과 도내 60개교가 오는 20일까지 등교수업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로 제한한다.

전체 학생 등교수업이 가능한 직업계고(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과)의 경우 9개교 중 8개교가 14일부터 전교생 매일 등교수업을 하면서 ‘전면 등교’에 시동을 걸었다.

1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사운영 조정 결과 도내 전체 314개교(유치원 포함) 가운데 254개교(유

123, 초 86, 중 26, 고 16, 특수 3)는 전체 학생 등교수업, 60개교(초 27, 중 19, 고 14)는 전교생의 3분의 2 등교수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의 직업계고 등교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도내 직업계고 9개교(특성화고 6개, 일반고 특성화과 3개교) 중 제주고(2/3 밀집도)를 제외한 8개교는 14일부터 전교생이 매일 등교수업을 한다.

제주고도 다음주부터 전체 학생 등교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도내 직업계고는 21일부터 전면 등교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은지기자

월대천 8월말까지 정비 난간 낮추고 제방 높여

제주 월대천 난간이 낮아진다.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 난간 높이를 줄인 뒤 제방을 높인다는 것인데, 관람 환경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오는 8월 29일까지 ‘월대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폭우로 월대천 일부 산책로가 범람 위기를 겪으면서

이 이뤄지는 것이다.

제주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월대천 둘레 약 172m를 정비한다. 정비 내용은 난간 높이를 기존 120cm에서 70cm로 줄이는 대신 제방(갑담)의 높이를 50cm 올리는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방 높이가 높아져 범람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로 난간의 높이는 낮아지면서 키가 작은 어린이도 월대천을 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문범기자 seb1119@ihalla.com

Advertisement for 'Pangnim Village' featuring a collection of clocks and a scenic view of a mountain. Text includes: "언제든지 가시려 드립니다", "여행의 고장 광주", "1박2일 자유여행+렌트카/특급 비즈니스 호텔 2인1실", and prices for 4, 3, and 2 people. Contact info for Pacific Tour and Goto Ningsa is provided.